

“서울에서 청정지역 곡성으로 농촌유학 왔어요”

곡성만의 교육 프로그램에 반해 농촌유학 결심

전학절차 밟아 최소 6개월 이상 학교 생활해

전남의 한 농촌이 서울에서 유학을 온 아이들로 분주해졌다.

얼마 전 농촌유학을 위해 서울에 살던 4가족(8명)이 전남 곡성군에 내려왔다. 서울시 교육청과 전남도 교육청이 협약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농촌유학 프로그램 참가자들이다. 이들은 곡성군에서 제공한 주거공간에서 생활하게 된다. 그리고 각 가정의 아이들은 전학절차를 밟아 최소 6개월 이상 곡성군에서 학교를 다니게 된다.

특이한 점은 농촌유학생들이 곡성군에서도 중심지인 읍내가 아니라 삼기면과 오산면에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다.

아이들도 지역의 작은학교인 삼기초등학교와 오산초등학교에서 공부한다. 보다 자율적인 교육환경에서 자연과 생태를 벗하며 감수성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 작은학교를 선택한 이유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과 삶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에는 모두가 시골에서 도시로 유학을 갔다면 이제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유학을 가는 사람이 늘고 있다. 획일화를 벗어나 다양성을 추구하고, 어디에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를 중시하는 흐름이 생겨난 것이다.

농촌유학을 통해 곡성군에 내려오게 된 학부모 이은미 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아이가 작년에 학교를 많이 가지 못했다. 청정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워보고 싶어 내려오게 됐다.”라고 말했다.

곡성군 오산초에 자녀를 전학시킨 학부모는 서지연 씨의 생각도 비슷했다. 서 씨는 “평소 교육에 관심이 많다. 자연환경 뿐 아니라 숲 교육 등 곡성군에서 운영 중인 교육 프로그램에도 눈길이 갔다. 자연과 생태 속에서 이루어지는 곡성만의 독특한 교육이 아이의 정서는 물론 앞으로의 시대가 요구하는 능력들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곡성군은 2018년도부터 교육을 핵심 시책으로 삼고 활발하게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지자체와 교육청, 민간이 힘을 합쳐 미래교육재단을 설립하기도 했다. 학교가 살아야 마을이 살고, 마을이 살아야 지역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이 그 출발이었다.

이번 농촌유학 이전에도 곡성군은 <섬진강 맑은물따라 농촌유학캠프>를 4차례 진행한 바 있다. 사람책과 함께하는 역사문화탐방, 작은 학교 설명회, 각종 농촌체험거리 등 프로그램이 알차다고 입소문 나서 높은 인기를 끌었다. 서울시 교육청과 전남 교육청이 농촌유학 대상지 중 하나로 곡성군을 선정한 것도 곡성군이 가진 노하우와 의지때문이다.

앞으로도 곡성군은 미래교육재단을 통해 농촌유학의 대상을 서울 뿐 아니라 인근 도시 지역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족 공감 농촌유학 체험을 역사, 문화, 생태 등을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내려오고 싶어도 살 곳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은 모듈러 주택, 빈집 리모델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관계자는 “학교는 교육과 문화의 중심이다. 농촌유학을 통해 도시의 가족들이 곡성을 제2의 고향으로 삼아 아이

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라고 밝혔다.

곡성=양해영기자

화순교육지원청, 마음프로젝트 운영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현희)은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심리적 정서적으로 위축되었던 학생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친구들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평화로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마음프로젝트를 운영한다.

마음프로젝트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과 함께 평화로운 학교생활을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으로 ▼공감과 배려의 주간 운영, ▼즐거움 학교생활을 위한 웃음꽃! 프로그램, ▼마음[보듬-나눔-이음-치유] 등 다양한 정서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공감과 배려의 주간 운영은 학기초 학생들의 학교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상담활동과 1학년 담임을 대상으로 학교급의 변화에 따른 학생들의 특성을 공감하는 활동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학교생활이 되도록 지원한다.

웃음꽃! 프로그램은 방과후시간 등을 활용하여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놀이활동, 미술활동, 관계회복, 심리극복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정서적으로 우울함을 극복하고 마음껏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음보듬-나눔-이음-치유 프로그램은 화순군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관내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서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마음보듬은 정서적으로 위기를 느끼는 학생들에게 전문기관을 통한 심리치료를 지원하여 사전에 위기를 극복하게 하고 있다.

마음나눔은 위기 학생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학생들의 어려움을 지원하여 결핍된 환경을 조금이나마 채워주고 있다.

마음치유는 Wee센터에 위촉된 자문의사와 연계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지원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음이음은 학생들의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갈등관계를 회복하고 평화로운 학교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수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운영된다.

그 밖에도 화순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안전생활 프로그램, 따뜻한 학교를 만드는 회복적 생활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화순=박순철기자

순천대 일자리센터, ‘2020 취업성공우수사례공모전 사례집’

체계적인 취업준비 지원하기 위해 제작

순천대학교(고영진 총장) 대학일자리센터는 최근 순천대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2020 취업성공우수사례 공모전’을 실시하고 공모전에 참여한 23명의 사례를 모아서 ‘2020 취업성공사례집’을 제작했다.

동 사례집은 취업을 앞둔 졸업예정자들과 취업준비생들에게 취업에 성공한 선배들의 생생한 취업 성공담을 전달함으로써 체계적

인 취업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작하였다.

사례집은 입사한 회사와 직무소개, 취업 결정 및 준비과정, 취업과 관련된 시행착오와 깨달음, 나만의 취업전략 노하우와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등이 수록되어 현실적인 취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순천대 대학일자리센터는 향후 졸업생 성공사례집을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배포하

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구직자의 진로 및 취업상담, 현장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다.

순천대학교 양숙향 대학일자리센터장은 “의지만 있으면 길은 보인다.”라며,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고용시장이 위축되어 취업 자신감을 잃은 취업준비생들이 선배들의 취업 성공 노하우를 통해 취업에 성공하고, 다시 후배들에게 길을 보여주는 선순환이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함평교육지원청 “함평의 청소년을 평화롭게 키우겠습니다”

청소년 평화지킴이 활동가 대상 회복적 정의 전문가 과정 연수 운영

함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언)은 함평 관내 학부모 및 지역민 20여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평화지킴이 활동가를 대상으로 회복적 정의 전문가 과정 연수를 운영한다.

이 연수 과정은 2021년도 함평교육지원청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결과 선정된 사업인 ‘함평 청소년 평화지킴이 육성 및 파견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의 목표는 지역 내 학생 간 갈등과 폭력을 예방하고 평화교육 지원을 위해 지역민과 학부모를 화해와 조정, 학교폭

력 예방을 위한 활동가로 육성하고자 함이다.

이번 연수 과정은 비대면과정 40시간, 대면과정 40시간, 총 80시간의 과정으로 3월 8일부터 시작해서 5월 15일까지 13회에 걸쳐 진행된다. 주된 연수 내용은 회복적 정의에 대한 이해, 회복적 공동체 이해, 신뢰 서클, 갈등 전환의 이해, 회복적 대화법, 문제해결 서클, 조정자의 자질과 역량 훈련 등 이론부터 실천까지 단계별로 구성되었다.

함평=김광춘기자

